

부평 캠프마켓, 국내 첫 오염토 완전 정화

다이옥신 오염 2년 6개월만에 제거
목표치 100pg보다 낮은 2.18pg 달성

부평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는 다이옥신 오염토양 1만 1031㎡에 대한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화사업 시작 2년 6개월 만이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난 9월 30일 토양을 채취해 다이옥신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목표치인 100피코그램(pg-TEQ/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대규모의 다이옥신 오염토를 완전히 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3월 주민공청회에서 정화목표를 100피코그램으로 결정한 바 있다.

캠프마켓 A구역은 토양에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분리된 가스도 열산화 공정을 거쳐 무해화해 배출하는 열탈착공법을 적용



부평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 관계자들이 A구역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해 정화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복합오염 정화는 국방부가 77억 원을 투입해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B구역의 공정률은 23%로, A구역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다. D구역은 내년 3월까지 환경 기초조사를 마친 뒤 정화사업을 시작하면 오는 2024년 정화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번 A구역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토양 완전 정화는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2018년 10월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분기 1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모두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이옥신 정화사업 발주방안, 실증시험 과정 검증 등 정화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했다.

특히 캠프마켓 주변 6개 지점의 대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것과 정화결과 분석 시 교차 검증을 도입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이옥신 정화의 성공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화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 민관협의회의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방부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민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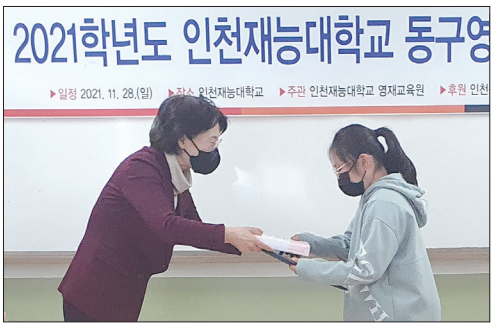
동구, 전국 유일 ‘초등 저학년 영재교실’ 수료식 개최

區,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무료 진행
학교생기부 기록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인천시 동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초등학교 1·2·3학년 1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동구영재교실’ 수료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의 관·학협력사업인 동구영재교실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구의 교육복지사업이다.

초등학생의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과학·수학·창의·논리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로



동구와 인천재능대가 함께 진행한 영재교실 수료식이 28일 열렸다. 동구 제공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일정기간 이상 교육받은 수료자에게는 영재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와 함께 학기별 활동모음집(포토폴리오),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에 관한 기록 등 다양

한 혜택을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동구영재교실을 운영하고자 ▲등교 전 자가진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검사 및 손소독 실시 ▲방문기록 작성 ▲교육장소 소독 및 환기 ▲학생 간 밀집도 최소화 등 교육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아이들이 1년 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허인환 구정장은 “동구영재교실 운영 등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배움이 즐겁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 위해 지역 민·관·봉사단체 머리 맞대

학교내 주·정차 드롭존 설치 제시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지역 민·관·봉사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더욱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인천연구원,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인천본부 기관의 소속 스텝은 교통 분야 전문가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기관별로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질문하면 실행방안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연구원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스쿨존 안전강화 방안’, 부평경찰서가 ‘대형 공사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 방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데이터 활용 및 어린이 통학로 시설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천녹색어머니회연합회는 학교 주변 주·정차금지 제도와 관련, 학교에 주·정

차가 가능한 드롭존(Drop-zone,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형태의 승·하차 지점) 설치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현수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토의한 자리인 만큼 즉시 반영 가능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정규안전으로 상정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형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남동구 간석2동, 코로나에 지친 주민 위한 마을축제 성황리에 종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개최 추진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간석2동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19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해 왔으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뜻으로 추진됐다.

축제는 모두 300여 명의 주민이 시차를 두고 참여한 가운데 남동구 청년예술인지원사업 ‘푸른나미’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나라사랑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초청 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캘리그래피 염서, 마스크줄 만들기 등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간석2동 마을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동구 제공

체험행사와 즉석사진 촬영을 하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에선 간석2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했다”며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번 축제로 지친 일상에 활을 둘 수 있었

던 것 같다”고 말했다.

남찬우 간석2동장은 “이번 축제로 주민들이 잠시나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떨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합심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친환경 휴식·추모공간 ‘강화 해누리공원’ 준공

6만 6000여㎡ 부지… 129억 원 투입

공공시설 최대 규모… 4300여기 조성

인천시 강화군이 국가유공자 애우와 친환경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추진해온 ‘해누리공원’이 29일 준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군수, 신득상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및 회원, 주민 등이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준공식 참석자를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으로 제한했으며 발열체검과 참석자 명부작성, 행사장 방역소독을 철저히 진행했다.

해누리공원 조성은 무분별하게 분묘가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던 기존의 황청리 공설묘지를 재정비, 경관을 개선시키고 국가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공공시설물 중 역대 최대 규모면적인 해누리공원은 6만 6000여㎡ 부지에 국비 28억과 군비 101억 등 총사업비 129억 원이 투입됐으며 국가유공자 묘역 2000여 기와 일반군민 묘역 2300기 등 총 4300여 기가 친환경 자연장지로

조성됐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호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추모공간인 호국마당을 설치했다.

유류부지에는 사계절 정원화과 파고라 등 쉼터를 꾸미고 서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휴식과 힐링, 나들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했다.

앞서 군은 해누리공원 개장에 맞춰 국가유공자 묘역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7일 마련했다.

군은 장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군민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풍광 좋은 곳에 최신 시설을 제공하고 정부의 자연장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면서 선진 장묘문화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해누리공원 준공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강화 출신 국가유공자를 타 지역 현충시설이 아닌 고향에 모실 수 있게 돼 군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누리공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교 기자



연수구민이 만드는 마을영화제 참가자들이 상장을 들어보이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수구 제공

연수구, ‘영화인 꿈’ 청소년들과 특별한 소통

구민이 직접 만든 마을영화제 개최

인천시 연수구가 매년 주민이 직접 만든 영화 속 마을 이야기를 통해 영화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해 온 ‘2021 연수구 마을영화제’가 지난 27일 CGV 연수 2상영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마을을 담(談), 영화를 담다(多)’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수스토리 초청상영제’와 ‘청소년 창작영화제’, ‘연수구 마을영화제’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연수스토리 초청상영제’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연수스토리의 주인공과 가족, 지인들을 초청해 영상상영과 주인공 인터뷰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 연수스토리 상영제는 하와이 민속무용과 판소리 공연, 시 낭독 등 연수스토리 주인공들이 직접 꾸민 무대 공연으로 참석자

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오후 1시30분부터는 ‘연수구 청소년 창작영화제’가 지역 5개 고등학교에 영화제작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영화 창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시나리오 구성부터 촬영·편집·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예술 체험 교육을 지원해왔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10개의 작품을 상영하고, 심사를 통해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눠 참여한 학교에 상장을 수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 마을영화제’에서는 오후 4시30분부터 7시까지 연수구민 누구나 영화에 꿈을 키우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연수구, 영화제작아카데미’를 통해 제작한 6개 팀의 작품을 상영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개 부문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윤용해 기자

“나무야 사랑해”… 계양구, 나무 겨울옷 입히기 행사

관내 아이들 환경보호 체험 시간 가져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으로 ‘겨울나무 옷 입히기’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겨울나무 옷 입히기’사업은 주민들이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주민들은 추위와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자 직접 손뜨개로 만든 옷을 나무에 입혔다. 또 관내 구립 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이 ‘나무야 사랑해’라는 글을 작성, 직접 나무에 두르는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정진선 계산동 동장은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뜨개옷을 나무에 입히면서 서로 소통하고



계산동 어린이들이 ‘나무야 사랑해’라는 문구를 만들어 가로수에 둘러주고 있다. 계양구 제공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